

# 13년 세월을 어린이들의 " " " " " " " " " " " 전북 전주시 금암국민학교

시인 盧天命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노래했던가...

보건 및 의료계의 여왕적인 간호원, 보건진료소원, 양호교사들. 그들이 하는 일에 보통사람들은 순수함, 청결함 그리고 백의의 천사로 우러러 본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그들의 생활은 때때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되나 그것을 웃음으로 이겨내면서 24시간을 보낸다.

스승의 날을 맞이한 국민학교 양호교사 - 다른 교사들은 학교담임이라고 사리 같은 60여명의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 학생들을 상대하는 양호교사의 방은 썰렁한 한풍이 분다. 그런 썰렁한 시간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용하는 양호교사들



양호교사 전현숙씨(35세) (전라북도 전주시 금암국민학교)는 1973년 9월 꽃다운 22세 나이에 양호교사직에 몸담았다.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녀는 지금도 한번이나마 자신의 일에 후회한 적이 없다.

13년동안의 전현숙양호교사가 겪은 이야기는 음식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양호교사들의 일부분이겠지만 독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 ■ 겸손, 온화, 정숙, 성실한 성격

『전현숙양호교사는 겸손하며, 온화하고, 정숙·성실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전선생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학생 보건교육교재를 직접 작성하고 건강신체검사에 대해 항시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저역시 마음이 든든합니다.』 기자의 방문을 맞이한 이동석 교장선생님이 전교사의 칭찬을 끊임없이 이야기 한다.

작년에 부임한 이교장은 불과 몇달 안되었지만 전교사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적이 한 두번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 건강관리에 전념해...

“ “ “ “ “ “ “ “ “ “

## 전현숙 양호교사를 찾아서

### ■ 어릴때부터 보건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예전에는 간염검사나 기타 모든 검사에 대해 무조건 접종하는 경향이 많았지요. 하지만 요즘에는 국민학생들의 항체 형성과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이 잘 안되어 선검사·후접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금암국민학교의 건강관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녀는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정기적인 건강검사의 필요성은 어릴때부터 어른들이 심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 ■ 아직까지 연2 회 정기적인 기생충 검사가 필요.

그녀는 『도시의 기생충 감염을 극소화에 따라 연2회 검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편충, 간흡충, 요충들의 특수충에 대한 조치와 검사가 단절된 후 감염율이 재상승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연2회 기생충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생충검사의 소홀함에 대해 소신있게 말하면서 완전하게 뿌리를 뽑는 것은 어렵지만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기생충 검사는 꼭 연2회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그

녀의 얼굴에서 질병없는 금암국민학교의 밝은 모습을 보는 듯 했다.

### ■ 장애자들을 위해 일을 하고 싶어요

전라북도 미술대회에서 두번의 입선경력과 주부백일장에서 입선한바 있는 그녀는 취미로서 틈틈이 쓰고 있는 서예와 글귀들을 모아서 정신박약아, 지체부자유어린이들, 심장병을 앓고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회를 가지는 것이 소망이라며 어린아이들에 대한 가정교육에 대해 『정신적인 갈등이 어린아이들에게 빈번해지는 것이 요즘 현실이기에 정신적인 대화가 절실하다』고 말하면서 가정에서의 은폐보다는 올바르게 성실한 어른들의 교육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주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병원에서 간호원 생활을 하다 교직에 들어온 그녀의 부군 반종우씨 역시 고등학교 생물교사로서 교직계에서는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는 잉꼬부부로 소문이 나기도-

때로는 선생님으로, 때로는 어머니로, 때로는 누나처럼 어린아이들을 보살피던 손에 기자의 눈길이 멈추어 질때 기자는 천사의 손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일으킬 뻔 했다.(오 일민 글)